『紅樓夢』의 혼종성 연구

: 滿漢文化 교섭의 시각으로 홍루몽 읽기*

趙美媛**

目 录

1. 들어가며
2. 만주족 지배하의 청대 사회와 滿漢文化 交融
3. 조설근 가문과 만주문화
4. 홍루몽에 나타난 만주문화
5. 홍루몽의 전파와 만주문화
6. 나오며

1. 들어가며

18세기 중엽 청조 건륭제 때 등장한 홍루몽에 대한 연구는 그간 이상하리만큼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정권을 잡고 대륙을 통치하던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 의식되지 않았다. 이 점은 중화권의 안과 밖 모두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며, 홍루몽은 주로 '한족문화의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한족문화의 시각'이라는 말에는 두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홍루몽을 漢族 | 정치적 부활과 복원의 이상을 담은 정치소설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한족 중심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홍루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주문화의 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350)

**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www.kci.go.kr

향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간 홍학계에는 작가 조설근의 가문이 청조 황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루몽에 재현된 다양한 문화, 풍속, 관습, 제도 등이 당시 만주문화 혹은 滿漢 문화의 융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며, 작가의식과 홍루몽의 형성에서부터 텍스트의 유통과 보급 과정에 드리워져 있는 만주문화의 그림자를 의식한 총체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홍루몽을 '위대한 중화/한족 문명'의 유산으로 규정하면서 홍루몽에 반영된 만주 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해 왔다.[2]

예컨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홍학계를 풍미했던 소위 '索隱派 舊紅學派 蔡元培 『石頭記索隱』에서 홍루몽을 '청대 강희조의 정치소설'로 규정하면서 "작자는 민족주의를 매우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작중의 이야기는 명의 멸망을 애도하고 청의 실정을 폭로하는 데 있으며, 이 점은 한족의 명사로서 청조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애석해 하는 뜻을 기탁하고 있는 데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3]라고 노골적으로 홍루몽을 한족 인사의 정치적 불평이 담긴 민족주의적인 소설로 규정하고 말았다. 홍루몽의

1) 조설근의 原籍ㅏ 가문에 대한 연구는 중국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胡適 『紅樓夢考證』 周汝昌 『紅樓夢新證』 吳世昌 『紅樓夢探原』 朱淡文의 『紅樓夢論源』 馮其庸 『曹雪芹家世新考』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만주족 황제와 한족 신하와의 관계를 조설근의 祖父 曹寅ㅏ 강희제와의 관계를 통해 연구한 Jonathan D. Spence의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Bondservant and Master(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66)가 있다.

2) 白燕 : 홍루몽 연구가 주로 한족문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주된 이유를 세가지 들고 있다. 첫째, 조설근이 한족 혈통이면서 만주 包衣ㅏ는 이중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조설근의 신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둘째, 『홍루몽』이 '旗化ㅢ 필법을 피하고 있어서 만주문화가 생소한 학자들이 만주문화를 문화배경으로 참조하려는 자각성이 없어서이며, 셋째는 신해혁명 이후 형성된 '反滿 사상으로 조설근과 홍루몽에 반영된 만주문화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白燕 「滿漢文化交融視野下的紅樓夢硏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1쪽.)

3) 蔡元培 『石頭記索隱』『紅樓夢評論選』 王志良 主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년, 178쪽)

www.kci.go.kr

작가인 조설근(1715?-1763?)이 漢族 l었고, 정치적 불만을 가진 작가가 자신의 가문의 흥망성쇠 속에서 체험한 정치적 번영과 불행 때문에 홍루몽을 과도하게 정치소설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만주문화와 홍루몽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바 있는 周汝昌이 『紅樓夢新證』에서 "조씨 가문의 윗대는 비록 漢人이지만 그들이 귀속된 것은 만주 包衣(만주어로 노예라는 뜻)기였기에 근본적으로 한군기가 아니었다...조씨 가문은 비록 포의 출신이지만 역사가 오래되어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냈으니 실제로는 이미 '대대로 벼슬한 명망가'가 되었으며, 포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명목만 남아 있을 뿐 그 실질은 변해버렸다...하지만 설근의 책에 묘사된 것을 보면 어렸을 때 가정의 음식과 의복, 예의 범절과 가법이 모두 만주의 풍습이라 한인이 짐짓 흉내낼 것은 단연코 아니었다. 종합해 보건대, 청나라 왕조가 개국한 뒤 백년이 된 조설근은 핏속에 '漢'이 남아 있는 것 이외에는 이미 99% 이상의 만주 旗人이 되었다. '망국'이니 '명나라를 생각한다'느니 하는 견해를 그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도 황당무계하여 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4]라고 한 것처럼 홍루몽이 형성과 전파 과정 중에는 새롭게 중원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만주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실 조설근, 나아가 조설근의 가문만큼이나 청조를 통하여 이민족인 만주족과 친밀성을 가진 문인 가문은 없을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조설근의 가문은 누대로 청조의 황실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며 권력과 부를 소유한 집안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홍루몽이기에 본 연구는 한족 문화라는 단일한 시각으로 홍루몽을 연구해 온 홍루몽 연구 시각을 반성하고 하나의 '텍스트'는 '다양한 민족 문화 사이의 교섭'의 결과이자, 기본적으로 '혼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시각에서 홍루몽 텍스트의 '혼종성'을 滿漢文化 교섭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홍루몽이 소수민족으로서 청조를 지배했던 만주족의 관습, 풍속, 제도와의 혼융 속에서 생겨난, 당시의 가장 충실

4) 周汝昌 『紅樓夢新證』 人民文學出版社 1976, 129쪽.

www.kci.go.kr

한 혼종적 서사물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滿漢文化 ㅣ교섭의 시각으로 보아야 홍루몽 텍스트가 갖고 있는 탁월한 리얼리티와 역동성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청대 초중기 만주족 문화와 한족 문화 혼융의 양상을 살펴본 후, 조설근 및 조설근 가문과 만주 황실과의 관계, 홍루몽 텍스트에 나타난 만주문화의 양상, 홍루몽이 流傳 ㅣ는 과정 중에 나타난 만주 문화와의 관련 양상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5)]

2. 만주족 지배하의 청대 사회와 滿漢文化 交融

청대 사회와 민족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만주족이 '한화(漢化 sinification)'되었다는 관점이다. 즉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다수의 漢族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영토와 다수인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수인 만주족의 한화정책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만주족 고유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만주족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

5) 만주문화와 홍루몽을 관련지어 연구한 것은 극히 소수이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여창은 「滿學與紅學」이라는 짧막한 글에서 만주문화와 홍루몽과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고, 미국의 중국사 연구자인 조나단 스펜서(Jonathan D. Spence)는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Bondservant and Master(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66)에서 만주족 황제와 한족 신하와의 관계를 조설근의 祖父 曹寅ㅏ 강희 황제와의 관계를 통해 연구한 바 있다. 한편, 장징은 『사랑의 중국문명사-잡종문화 중국 읽기』에서 홍루몽에 등장하는 가보옥과 임대옥의 사랑을 중국 문명사에 나타난 '사랑의 새로운 범례', 혹은 '내면적 사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만주족과 한족 간의 문화 충돌의 부산물로 설명하고 있다. 余英時 「曹雪芹的反傳統思想」 紅樓夢硏究集刊 80년 10월, 5집)에서 조설근이 滿化 漢人 旗人 귀족 가정의 허위적이고 엄격한 예법에 대한 반항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白燕 山東大學校 「滿漢文化交融視野下的紅樓夢硏究」가 있는데, 이 분야의 가장 세밀한 연구로서 참조할 만하다.

www.kci.go.kr

나 어느 한 민족을 우위로 하는 '중심주의 시각'은 다른 한 민족의 역할과 기능을 배제시기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6] 예컨대, 이춘복의 지적처럼, 청조에 만주화(滿化 와 만주본위, 그리고 만주족 중심주의 등의 현상만 존재하였다면, 청조의 역대 황제들이 '만주는 국가의 근본'이니 '만주어(淸語 旗民 ㅣ 근본'이라는 유사한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청조 초기 황제들이 만주팔기와 청조종실의 한화와 한족습성, 그리고 만주어로의 소통불능에 대한 불만이나 질타를 빈번하게 표출한 것은 만주인의 한화 정도가 그 만큼 심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정복자인 청조가 다수의 피정복자인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였든 한족의 제도, 문화, 습관, 종교 등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滿漢 滿漢 간 융합현상의 출현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또 반대로, 만주족이 고급문화인 한족문화에 동화되었다는 '漢化 漢軍八旗 滿化 滿化 정책으로 인한 滿漢 滿漢 관계 문제, 적어도 청대 초중기의 사회는 만한융합의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7]

유구한 중국 봉건체제는 청조를 끝으로 그 막을 내린다. 청조는 중국 역사상 최후, 최대 규모의 전제왕조이자 중화제국을 완성한 왕조로, 통일왕조가 된 후 가장 번영을 누리던 18세기 중엽에 현대 중국으로 이어지는 최대 판도의 영토를 확보하였고, 중국 동북부와 대만, 몽골, 티베트 등을 통치하였다. 나아가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여 이슬람의 위구르 세계로까지 그 통치 영역을 확장하였다. 16세기 이후 유럽에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였고, 유럽인들이 적극적으로 유럽 세계의 밖으로 진출하던 소위 '세계의 일체화'라고 불리우는 시기에 중국에서는 강희, 옹정, 건륭으로 이어지는 3대 부자에 걸친 130여 년간 최대의 판도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와 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소위

6) 이춘복, 「청대 만주본위의 민족정책과 문화충돌」, 『다문화콘텐츠연구』, 12집, 2012, 227쪽 참고.
7) 이춘복, 같은 글, 228쪽.

www.kci.go.kr

'華夷ㅣ통합'을 실현하여 현대 중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복합 다민족국가로서의 기반을 형성하였다.[8)]

문화적으로 볼 때, 청대의 중국문화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가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족문화가 여전히 토대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만주 문화가 남하, 침투하여 한족문화와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완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청초의 황제들은 만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경한 만한 융합정책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한족 전체를 대상으로 체발령과 복식령을 내려 滿化ㅑ 도모하였다. 이 정책은 초기에 한족의 저항으로 수많은 희생을 가져왔지만, 한족들은 청조의 滿化ㅕ책을 점차 현실로 받아들였다. 또한, 청조의 漢軍八旗 滿化ㅕ책은 한군팔기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으로 인해, 한군팔기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9)]

이처럼 청조는 大一統ㅣ강압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만주 팔기와 한족 인사에게 漢化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만한 문화의 융합을 촉진시켰다. 예컨대, 청조는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수의 만주팔기와 만주종실에게 漢語 漢文ㅓ적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청조가 지향하는 만주족 중심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만주팔기와 청조 종실들에게 漢語ㅏ유가서적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滿漢ㅣ문화적 차이와 차별을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청조가 다수의 한족을 유인하고 회유하기 위한 통치이념 채택과 도서편찬의 문화사업은 한족문인들의 反滿 反滿ㅏ쟁을 완화시켜 청조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0)]

특히 홍루몽과 관련하여 白燕 滿漢文化 京旗文化ㅢ는 개념으로 표현한 바 있다.[11)] 이것은 京師 旗人ㅑ의 독특한 정

8)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휴머니스트, 2009, 5-7쪽.
9) 이춘복,「청대 전기 華夷觀 滿漢 융합」,『다문화콘텐츠연구』, 14집, 2013, 301-302쪽.
10) 이춘복, 앞의 글, 302쪽.
11) 백연, 앞의 글, 7-24쪽 참고.

www.kci.go.kr

체성과 문화를 일컫는다. 주지하다시피 청조의 독특한 사회 지배체제인 '八旗制'는 다민족사회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이었다.[12] 일반적으로 전 인구의 1%도 안되는 만주족이 1억이 넘는 중원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대륙을 다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바로 팔기제도에서 찾는 바, 팔기제는 '軍政合一・兵民一體 動因 ㅣ었기에 팔기제에 대한 이해는 청대 사회를 이해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13]

팔기제 하의 모든 旗人 ᄃᆞ 엄격한 관리와 제약을 받았다. 만주족은 북경을 장악한 후 팔기병을 주둔시켰는데 이를 '京旗 駐京八旗 라 하였고, 도성 밖의 팔기는 '駐防八旗 駐防八旗 畿輔駐防・東北駐防・各直省駐防 駐京八旗 駐防八旗 漢人 民人 ᅡ 섞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旗人 ᄅᆞᆯ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나 사상을 보존하면서 팔기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독특한 사회적 지위와 생활양식은 旗人 집단과 다른 사회집단을 구별짓는 특징을 만들어내었으니 점차 '民人 ᅡ 차별되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했고, 나름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구축하였으니 이를 '京旗文化 ᅡ 할 수 있다.[14]

3. 조설근 가문과 만주문화

조설근의 가문과 만주문화는 상당히 긴 만남의 역사를 갖고 있다. 단순히 만남의 역사가 긴 것을 넘어서 曹家와 만주문화는 대단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설근 세대까지 대략 5세대가 넘는 그의 선조들은 만주 문화의 중심인 황실 생활을 매우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다. 특히 조설근의 증조할머니, 즉

12) 팔기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만주족의 청제국』,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푸른역사, 2009, 86-153쪽을 참고할 것.
13) 徐正欽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만주학회, 만주연구 제3집, 2005, 79-80쪽.
14) 李思蘊 「清代滿漢文化交融背景下的旗人小說創作」 暨南大學 2008, 4쪽 참고.

www.kci.go.kr

조설근의 할아버지인 曹寅의 어머니는 강희제의 유모였으니 曹家의 사람들이 강희제를 보좌하면서 만주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가의 사람들은 혈족상으로는 한족이었지만, 생활 습관 면에서는 거의 만주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설근은[15] 漢人 正白旗 滿洲包衣 內務府 世家ㅣ 후예로 남경에서 태어나 13세쯤 되던 해에 북경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50세를 전후한 시기에 생을 마감했다.[16] 조설근의 高祖 曹振彦 曹錫遠 明朝 遼陽ㅣ서 수비하던 군관이었는데, 누르하치가 요양을 공격했을 때, 淸人ㅣ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621), 후에 도르곤이 入關 淸朝ㅣ 위해 군공을 세워 만주정백기 포의가 되었으니 조가는 이때부터 흥성하기 시작하였다. 조진언의 아들인 曹璽 孫 曹寅 즉 조설근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강희제와 독서친구로 지냈다.[17] 이로부터 曹家ㅏ 청 황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조인은 어린 강희제와 함께 공부하면서 강희제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강희제는 즉위하여 江寧織造ㅣ 설치하였는데, 그곳을 처음 맡은 사람이 바로 조새(강희 2년, 1663)였다. 강녕은 오늘날의 남경 지역을 말하며, 織造ㅣ 황실에서 쓰는 옷감을 제조, 관리하

15) 조설근의 이름은 霑 天祐 雪芹 芹溪居士 夢阮 芹圃 南京ㅣ서 태어났다고 여겨지지만, 그의 생졸년과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먼저 생년에 대해서는 첫째, 강희 50년(1711), 출생지 북경, 둘째, 강희 54년(1715), 출생지 남경, 셋째 옹정 2년(1724), 출생지 남경 등 세 가지 설이 있으며, 졸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 건륭 27년(1762) 除夕 除夕 仲春 등이다.

16) 조설근의 본적에 대해서도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그의 原籍地가 河北의 豊潤인데, 明 永樂년간에 遼東의 鐵嶺으로 옮겼다가 청이 북경으로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왔다는 설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조상들이 遼陽에 살았으며, 조설근의 高祖父인 曹振彦이 명조의 하급 군관으로 있다가 天命 6년(明 天啓 元年) 무렵 後金(청 원래의 국호)이 遼, 瀋을 공격할 때 잡혀서 노예가 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다.

17) 조인(1658-1712)은 자가 楝亭 詩詞 문장, 희곡 창작에 뛰어나고 서예에도 능한 정통 문인이었으며 저서에 楝亭詩集 古書ㅣ 15종이나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全唐詩』『佩文韻府』등 거질의 작품들도 들어있다.

www.kci.go.kr

는 곳인데, 비밀리에 민정시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후에 강희가 여섯차례 南巡 行宮 로 사용하면서 황제맞이 의식을 주관하였는데, 이 일을 무리하게 수행하는 바람에 조가는 큰 빚을 지게 되기도 한다. 조설근은 유년시절을 이러한 부귀와 영화 가운데 보냈으며, 이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홍루몽속의 가부와 대관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사치스런 귀족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한편, 조새가 죽자 그 아들 조인이 강녕직조를 계승하였다. 조인의 정식 관직은 通政使 織造 ㅣ일이었다. 강희제는 어릴 적 자신의 유모의 아들이자 함께 글공부를 했던 조인을 매우 신임했다. 조인이 병으로 죽자 강희제는 그의 아들 曹顒 織造 ㅏ이어 맡으라고 명하였는데, 조옹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강희는 조인의 쌍동이 동생인 曹荃(宣 曹頫 曹頫 ㅓ겨우 15세였으며 강희제 역시 얼마 있다가 사망하였다. 강희제가 사망하고 옹정이 등극한 후 조가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즉 曹頫 ㅏ해임된 것이다.[18] 결국 조가는 옹정 5년(1727) 재산이 몰수되고, 온 가족이 북경으로 이사했다.[19] 요컨대, 조새에서 曹頫 ㅣ이르는 3대 4인이 60여년간 강녕직조를 맡았고, 조진언이 청에 투항했을 때부터 조가의 재산이 몰수 될 때까지는 대략 106년의 시간에 달한다. 홍루몽에서는 賈府 ㅣ영화가 100여년(5회, 13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가의 흥망 年代 ㅏ근거로해서 한 말인 것이다. 홍루몽 속의 가부의 흥망성쇠는 작자 자신의 가족사를 반추한 결과라고 할 수 있

18) 조부가 해임되고 결국 조가가 몰락하게 된 것은 雍正帝 ㅣ즉위를 둘러싼 궁중 내부의 암투와 연관되어 있다. 강희제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옹정제와 윤사(胤禩 胤禟)이 싸움을 벌였는데,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경쟁자인 이들을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조인의 처남인 이후(李煦 ㅡ 윤사와 교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하옥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또 강희제의 측근들을 공격하여 국고가 빈 것을 曹頫 ㅣ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도록 하였다.

19) 이 때 조설근의 나이가 13,14세 쯤으로 추정된다. 조설근의 부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데, 혹자는 조설근이 曹顒 曹頫 ㅣ아들이라고도 한다.

www.kci.go.kr

을 것이다. 홍루몽에는 호칭이나 복식, 예법, 두발 형식,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법 등 만주족의 풍속에 대한 묘사가 상당부분 되는데, 이것은 조가가 한족이었지만, 이미 많은 부분 만주귀족의 풍속을 습득했다는 방증이 된다.

한편, 曹頫ㅏ 해임되고 조가가 몰락으로 점차 치닫게 되면서 조설근의 삶 역시 곤궁해졌다. 조설근의 나이 20세 전후가 되는 시점, 즉 건륭제가 즉위(1735)할 무렵까지 조설근은 할아버지인 조인이 남겨놓은 장서를 광범위하게 읽고, 吟詩 하였으며, 그림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설근은 과거를 보지 않고 만주족 자제들을 가르치는 右翼宗學 助教ㅣ 직무를 맡았다. 홍루몽 속의 가보옥처럼 그는 팔고문과 과거시험을 매우 싫어하였다. 따라서 과거 시험보다는 그가 가진 문학적 재능과 방대한 지식을 소설 쓰기에 쏟아부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대 사회에서 '民人 旗人 八旗意識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조설근 역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民人 旗人 八旗爲國家根本 · ·漢軍 팔기는 모두 황제가 누대로 부릴 수 있는 노복(八旗滿洲·蒙古·漢軍 皆朕之世僕 '으로 간주되었다. 때문에 '팔기'에 속해 있던 漢軍 包衣漢人 包衣ㅣ 신분이기는 하였지만 팔기군 정백기에 속해있던 조설근은 '旗人 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졌을 것이다. 특히 內務府ㅣ 속해 있던 포의들은 오랜 기간 팔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滿州化 라는 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20] 앞서 주여창이 언급한대로, 조설근의 경우, 혈통적으로 한족일 뿐 그 생활 방식이나 사상 등은 만주 旗人ㅣ 그것을 닮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홍루몽에 나타난 만주 문화

홍루몽을 읽을 때 받는 첫 인상은 소설 속에 그려진 귀족 가정인 賈府ㅏ 가

20) 白燕 같은 글, 34-35쪽.

www.kci.go.kr

부의 사람들, 기타 다양한 풍속, 양식, 제도, 관습들이 이전의 중원을 중심으로 한 한족 귀족이나 사대부 관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홍루몽이 전형적인 만주 귀족 가정을 재현하고 있으며, 작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주문화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21]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등장인물들의 머리 모양과 의복이다. 예컨대, 한족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可毁傷 '이라는 유가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를 자르지 않고 상투를 올린다. 이와 달리 만주족은 금나라 때부터 시작된 양 옆의 머리를 자르고 가운데 머리를 땋는 소위 '辮髮 '을 한다. 홍루몽에는 이러한 만주족의 두발 스타일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를테면, 3회에서 대옥의 눈에 비친 보옥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머리 주변의 짧은 머리카락은 작게 땋아 붉은 실로 묶어 정수리로 올려 함께 묶어서 큰 변발을 만들었는데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났다. 정수리에서 머리카락 끝까지 네 개의 큰 구슬을 달았는데 금과 팔보로 만들어 매달았다."[22]

또 21회에는 사상운이 보옥의 머리를 빗겨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옥의 머리 모양은 다음과 같다.

> "집안에 있는 터라 관을 쓸 것도 아니고 묶어 상투로 올릴 것도 아니어서 주변의 짧은 머리를 작은 변발로 엮어 정수리로 모아 다시 굵은 변발로 만들어 붉은 천으로 잡아맸다. 머리카락은 정수리에서 댕기 끝까지 중간에 네 개의 진주를 달았고, 아래 쪽에는 금장식으로 마무리했다."[23]

---

21) 이하 홍루몽 속의 만주복식, 음식, 호칭 관습 등은 백연, 같은 글, 81-102쪽 참고.

22) 본 고에서는 최용철・고민희 역『홍루몽』(나남출판사)을 사용하였다.(이하 '최・고본 홍루몽'으로 간칭)최・고본 홍루몽 1권, 90쪽. "頭上周圍一轉的短髮, 都結成小辮, 紅絲結束, 共攢至頂中胎發, 總編一根大辮, 如漆黑亮. 從頂至梢, 一串四顆大珠, 用金八寶墜角." (원문은 조설근, 고악 저, 인민문학출판사, 1997,『홍루몽』을 사용하였음)『홍루몽 』31쪽.

23) 21회, 2권, 28쪽. 또 63회에서 芳官 : 묘사할 때 "머리는 작은 가닥을 땋아서 정수리에 올려 놓아 거위 알만 한 똬리를 틀어놓고 나머지는 머리 뒤로 늘어뜨렸다. 오른쪽

www.kci.go.kr

한편, 여자 아이들의 머리 모양에 대한 묘사도 있다. 만주족 여자 아이들의 머리를 소위 '留頭　　留滿頭　留髮 라고 하는데, 만주족 여자는 어렸을 때 남자 아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기르지 않고 머리 주변을 다 깎고 나머지 머리를 땋는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머리를 깍지 않는데 이것을 '留頭 ㅓ고 한다. 후에 시집갈 때 머리를 빗어 틀어 올리며 더 이상 변발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6회에서 "소홍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다음 말을 이어가려는데 짧은 갈래머리 땋은 어린 시녀가 들어왔다. 손에는 꽃모양 繡本 ㅏ종이 두 장이 들려 있었다."[24]라고 할 때의 시녀 머리 모양이 그것이다.[25] 또, 남자아이가 아직 머리를 기르지 않았을 때, 변발의 꼭대기를 남겨두는 것을 속칭 '馬子蓋　　馬子蓋 ㅐ 대한 묘사도 나온다.

> "유씨댁은 시동에게 욕을 한마디 내뱉었다. "예끼, 이 원숭이 같은 놈아! 네 아줌마가 외간 남자 만나러 갔다 오는 길이라면 너한텐 삼촌 하나가 더 생기는 일인데 무엇이 의심스럽다고 난리냐! 네 똥통 뚜껑 같은 대갈통에 남은 그 알량한 머리카락 몇 가닥마저 몽땅 뽑아버리기 전에 알아서 기어! 어서 문 열지 않고 뭐하는 거야.""[26]

또한 전통적으로 만주족 여성은 머리에 금, 은, 비취, 옥 등으로 만든 비녀

귓구멍에 낱알만 한 작은 옥마개를 끼우고 왼쪽 귀에는 은행 크기만 한 딱딱한 금을 상감한 붉은 색 귀고리를 달았다. 방관의 얼굴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다 같이 웃으며 말했다. "저 두 사람이 꼭 쌍둥이 형제 같아 보이는데 그래."(63회, 4권 89쪽)

24) 최・고본 홍루몽 2권, 146쪽. "紅玉聽了冷笑了兩聲, 方要說話, 只見一個未留頭的小丫頭子走進來, 手裏拿着些花樣子幷兩張紙, 說道..."

25) 그밖에 7회에도 '留頭 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주서댁은 동쪽으로 난 쪽문으로 돌아나와 동쪽 정원에 이르러 이향원으로 향했다. 저택 문 앞에 이르니 왕부인의 시녀인 금천아라는 아이가 이제 막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어린 시녀아이와 함께 계단 앞에서 놀고 있었다."(최・고본 홍루몽 1권, 171쪽)

26) 61회, 최・고본 홍루몽 4권, 說話那柳家的聽了這小麼兒一夕話, 笑道: "好猴兒崽子! 你親嬸子找野老兒去了, 你不多得一個叔叔嗎? 有十麼疑的! 別叫我把你的馬子蓋揪下來, 還不開門讓我進去呢!

www.kci.go.kr

를 꽂고, 틀어올린 머리위에 꽃 꽂는 걸 좋아했다. 이런 풍속은 홍루몽에도 나타난다. 賈府 ㅣ서는 젊은 여성이든[27] 나이든 부인이든 꽃 꽂는 것을 좋아한다.[28]

한편, 두발 스타일 외에 복식에서도 만주족의 풍속이 잘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흔히 '旗袍 衣介 旗人 ㅣ 평상복이다. 이 옷은 한족이 주로 입는 '위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上衣下裳 와 다르게 위 아래가 모두 치마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깃이 둥글며, 소매가 좁고 왼쪽으로 옷깃을 여미어 허리띠를 두르게 되어 있다. 홍루몽 72회에는 가련이 가모의 시녀인 원앙과 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련이 웃으며 대꾸했다. "누님(원앙)은 일 년 내내 노마님을 모시며 애쓰시는데도 이쪽에서 문안 인사하러 가보지는 못할망정 되레 우리한테 문안 인사하러 오시다니 참으로 황송하기 그지없소이다. 그런데 나도 마침 원앙 누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되었군요. 도포를 입고 있으니 너무 더워서 일단 집에 돌아와 두꺼운 도포를 갈아입고 찾아가려던 참이었소..."""라고 할 때의 도포가 바로 '旗袍이다.[29]

---

27) 7회에는 설부인이 새로운 궁화를 아가씨들과 젊은 며느리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이건 궁중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비단을 접어서 만든 꽃 열두 송이야...자네 집안의 세 아가씨에게 각각 한 쌍씩 나눠주고, 나머지 여섯 송이는 대옥 아가씨에게 두 송이 주고 희봉에게는 네 송이를 주게나."설부인의 말을 왕부인이 곁에서 듣고 있다가 참견한다. "남겨두었다 보차에게 머리에나 꽂으라고 하지, 그 애들은 생각해서 뭐하려고?"(1권 175쪽)

28) "이환이 서둘러 나가 맞이하며 말했다. ""할머님께서 오늘 기분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아직 머리 빗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국화꽃을 꺾어 보내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이환의 시녀인 벽월이 벌써부터 각양각색의 국화꽃을 가득 담은 큰 연잎 모양의 비취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가모는 그 중에서 붉은 꽃 한 송이를 집어 자신의 귀밑머리에 꽂으며 유노파를 뒤돌아보고 웃었다. "자, 여기 와서 꽃을 한 번 머리에 꽂아 보시우."(40회, 2권 459쪽)

29) 최・고본 홍루몽 4권, 323쪽.(賈璉笑道 正是巧的很 我才要找姐姐 因爲穿着這袍子熱 先來換了夾袍子再過去找姐姐 不想天可憐 省我走這一趟 姐姐先在這裏等我了 94회에서 보옥이 입은 '모피로 된 통 저고리'(5권, 331쪽) 역시 당시 유행하던 긴 도포로 속칭 '小袍 ㅣ다.

www.kci.go.kr

한편, '箭袖 哇哈 ㅏ고 함)는 도포와 마고자의 좁은 소매인데, 소매 입구에 반원형의 소매부리가 있고 생김새가 말발굽 같아 일명 '馬蹄袖 ㅏ고 한다. 이것은 만주족 도포와 마고자의 가장 특징적인 옷소매이다. 이 전수는 북방의 긴 수렵 생활 속에서 겨울철에 활쏘기를 하러 나가는데 맞추어 생긴 것이다. 후에 入關 후 점차 퇴화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滿人 ᄂᆞ은 이 전수를 단 도포를 예복으로 쓰기도 하였다. 또한 나중에는 한족도 예복으로 쓰기도 하였다.[30] 홍루몽에서도 보옥이 전수 달린 도포를 입은 것은 대부분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였다.[31]

箭袖 鷹膀褂 ㅏ는 마고자가 있는데, 이것은 팔기 자제들이 말을 타고 위풍을 자랑할 때 즐겨 입었던 옷이다. 홍루몽 49회에 보옥이 이 옷을 입은 장면이 나오는데[32], 이것은 당시 팔기 자제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이다. '鷹膀 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독특한 양쪽 소매에서 비롯된 것인데, 매를 숭배하던 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족의 騎射 긴족으로서의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33]

한편, 홍루몽에 묘사된 가부의 식생활에는 많은 만주족 풍속이 들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餑餑 餑餑 ᄂᆞ 만주족의 전통적인 면제품으로 만주족의 가장 주요한 주식 중의 하나이다.[34] 또한 기마민족의 후예로 만주족은 야생의 먹거리를 선호했다. 예컨대 野鷄 ?0회, 43회, 49회) 나 사슴고기(49회, 37회)를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온갖 산해진미가 다 나오는 가부의 음식 중에 고급요리로 알려진 상어지느러미에 대

30) 백연, 앞의 글, 86쪽.
31) 북정왕을 만나러 갔을 때(14회), 사원에 갔다 왔을 때(3회) 등이다.
32) "只穿一件茄色哆羅呢狐皮袄子, 一件海龍皮小小鷹膀褂, 束了腰, 披了玉針蓑, 戴上金藤笠, 登上沙棠履..."
33) 남방 한족의 '半臂 巴圖魯坎肩 ᄂᆞᆯ 거쳐 팔기자제들이 좋아한 '응방괘'로 바뀌는 과정은 滿漢 ᄒᆞ 민족의 각기 다른 심미 취향 및 복식예술의 상호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백연, 앞의 글, 88쪽)
34) "正亂着 只見鳳姐兒打發人來請吃飯 尤氏道 我也不餓了 才吃了幾個餑餑 請呢奶奶自吃罷 "(71회)

www.kci.go.kr

한 언급이 거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비집(燕窩 요리는 자주 나온다. 이것은 만주족의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다. 청대의 강희제는 해산물을 싫어했고, 건륭제 역시 해산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35] 또 홍루몽에는 어패류에 대한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홍루몽 속의 수산물 요리는 게 요리 하나뿐이며, 생선과 새우는 장원에서 상납된 음식재료의 목록에만 나온다. 수산물은 철갑상어(鱘鰉魚 雜魚 海蔘 50근(약 30킬로그램), 보리새우(大對蝦 干蝦 200근 등이 있다. 잡어와 말린 새우에는 민물산도 있으므로 해산물은 더욱 적다.[36] 그에 비해 53회 '紅樓夢怡紅夜宴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육류는 종류에서도 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한족 여성들은 전족을 하지만 만주족 여성들은 전족을 하지 않는다. 홍루몽에는 여성들이 전족을 하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의 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37] 또한 만주족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흡연을 했는데, 홍루몽에서는 여자가 흡연하는 모습이 종종 나올 뿐만 아니라 손님에 대한 중요한 예절로서 담배를 보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101회) 또한 전통적 사냥 풍속을 따라 짐승의 가죽을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38]

한편, 호칭에 있어서도 만주족의 관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족은 성씨를 중시하여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 또한 직접 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여 字를 불렀다. 만주족은 그렇지 않아서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직접 부른다. 예컨대, 홍루몽에서 賈赦를 '赦老爺'로 부르고 賈政도 '政老爺', 賈珍

35) 건륭제의 식사 메뉴를 보면 상어지느러미나 해삼, 새우, 전복 같은 해산물이 없는데, 이는 만주족이 동북지역의 내륙에서 생활하여 해산물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장징, 『공자의 식탁』, 뿌리와 이파리, 2002, 211-212쪽.

36) 장징, 앞의 책, 212-213쪽.

37) 73회, 26회 등. 그렇다고 전족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족도 함께 묘사되고 있다.(65회, 62회, 69회, 70회 등, 향릉, 청문, 우이저, 우삼저 등은 전족을 하였음)

38) 53회에서 가진이 일족의 자제들에게 새해 선물로 가죽을 보내거나, 8회에서 보옥이 家塾 大毛衣服 : 입혀주었다.

www.kci.go.kr

은 '珍大爺', 賈璉은 '璉二爺', 賈寶玉은 '寶二爺'로 부른다. 가진의 처 尤氏도 '珍大嫂子'라고 하고 賈珠의 처도 '珠大嫂子' 등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만주족의 풍속이다. 또한 홍루몽에서 賈母는 '老祖宗'으로 불리워진다.(3, 8, 11회 등) 老祖宗은 본래 한족에서는 남자에 대한 호칭이지만, 만주족은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도 '老祖宗'이라 부른다. 남자의 호칭으로 권력 있는 여성을 부르는 것은 만주족의 관습이다. 이밖에도 만주족의 호칭은 상당수 된다.[39] 그밖에 홍루몽에는 팔기사회의 혼례, 장례, 임신과 육아, 신앙이나 놀이 풍속 등도 자주 묘사되고 있다.

5. 홍루몽의 전파와 만주문화

처음 홍루몽이 '脂硯齋重評石頭記 '라는 제목으로 등장했을 때는 주로 작가 주변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그 말은 홍루몽이 명대 이래 상품화되었던 일반 통속소설과는 달리 처음에는 판매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상품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작가가 근 10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홍루몽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40] 즉 적어도 등장 초기에 홍루몽은 결코 전사회적인 유통망을 고려한 소설이 아니었으며, 홍루몽의 최초의 전파는 조설근과 가까이 교유하던 지인들의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작가 주변의 지인들은 실제로 만주족 종실의 자제를 비롯한 그들의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

39) '家的 家的 ' 된다. 즉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 또한, 嬤嬤 만주어로 meme)는 유모라는 뜻. 홍루몽에서는 유모의 뜻과 나이 많은 하인의 부인을 부를 때 쓰인다.(40회). 또한, 主子 奴才 : 청대의 특유한 호칭이다. 팔기사회에서는 주인과 노복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다. 주인은 主子 奴才 ha)라 하였다.(7회, 9회)

40) 당시 弘昨 永忠 『讀紅樓夢』 批語 : 달고 말하길, '홍루몽은 세상에 전하기 위한 소설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明義 : '이 책이 아직 퍼지지 않아 세상에서 아는 자가 적은 것이 아쉽다'라고 하였다.

www.kci.go.kr

예컨대, 기홀수나 지연재 같은 홍루몽 최초의 독자이자 비평가는 실제로 조설근의 생활을 잘 알았고, 홍루몽의 창작 과정에 깊이 개입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旗人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詩를 통해 조설근의 晩年의 생활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는 敦敏, 敦誠 같은 조설근의 만주족 친구는 모두 右翼宗學 右翼宗學 |서 시작되었다. 조설근은 30세 가량 되었을 때 우익종학에서 조교를 맡았는데, 돈민, 돈성 형제는 조설근보다 20세 가량 어렸으나, 조설근과 친구로 지내면서 그에게 시를 써주기도 하였다.

또한 額爾赫宜이라는 이름을 가진 墨香은 돈성, 돈민의 숙부로서 홍루몽 초기 독자 그룹에 들어가는 怡親王 弘曉, 明義, 棠村, 松齋, 永忠 등과 교류하였고, 이로써 홍루몽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친왕 홍효(1722-1778)는 홍루몽 초기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홍루몽 조기 초본 중 '脂怡本(己卯本)'은 홍효가 편집한 이친왕부 초본이다. 또한 鑲黃旗 만주인인 明義는 그의 형 明仁이 돈성, 돈민의 친구이자, 이친왕 홍효의 매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堂兄인 明琳이 조설근과 잘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당촌, 송재, 영충 등 초기 독자도 모두 만주족으로 조설근 및 조설근 친인척의 지인들로 알려져 있다.

홍루몽의 전파와 만주문화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할 때 눈여겨 보아야 할 또 하나는 바로 청 중기에 유행했던 '子弟書'이다. 자제서는 '淸音子弟書'라고도 불리우는데, 청대 북방에서 유행한 민간 曲藝 형식이다.[41] 子弟書라는 이 민간의 희곡 양식의 명칭의 내원이 일반적으로 八旗子弟에서 왔다고 여겨질 만큼 자제서는 旗籍 자제들 사이에서 폭넓게 유행했다.[42] 그런데 이 자제

41) '자제서'는 청대 중엽 북경에서 형성되었으며 한 사람이 三絃琴 ; 타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한 사람은 삼현금을 타고 한 사람은 노래를 하는 坐唱 형식의 설창양식으로, 특히 旗籍 | 자제들이나 문인, 혹은 곡예 애호가들이 민간의 고사나 탄사의 형식을 빌어 書社 詩社 |서 재창조한 것이다. 자제서는 건륭 년간부터 북경, 심양 등의 지역에서 성행하여 반세기 간 유행하다가 청말민초에 大鼓 등의 곡예로 흡수되었다. (노선아, 「청대 홍루몽의 전파와 수용양상 연구」, 고려대 중문과 석사학위 논문, 103-104쪽)

www.kci.go.kr

서 가운데 가장 수량도 많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 것이 바로 홍루몽 자제서였다.[43] 홍루몽 자제서 중 가장 빨리 나온 것은『悲秋』로 홍루몽이 성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제서『悲秋』가 넓게 유전되었다. 또한 홍루몽 자제서의 작가는 대부분 旗籍 자제였으니 이것은 당시 만주족독자들이 얼마나 홍루몽 서사에 공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일설에 만주족은 본래 소설을 애호하는 전통이 강한 민족이며, 청대에도 당시 유행하던 역사연의류와 재자가인 소설들을 즐겨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후에 만주인들이 점차 漢語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소설을 애독하는 기풍이 더 성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滿漢文化 교융은 더욱더 강화되어 갔으며, 청 중기 旗人은 漢語를 사용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처럼, 만주족의 소설에 대한 기호를 비롯하여 조설근이 맺었던 특수한 교유관계는 홍루몽 전파에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홍루몽은 처음에 만주 문인들 사이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이다. 또한 건륭 년간에 생산된 팔기 자제서는 홍루몽 서사를 대중들이 보다 용이하게 감상하고 그로써 더욱 인기를 얻게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렇듯 청 중기 홍루몽의 전파에 만주문화가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만주족 독자에게 홍루몽 서사 및 홍루몽에 재현된 다양한 문화 양식이 그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고, 공감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홍루몽은 한족과 만주족을 비롯, 당시 전 계층과 민족에게 일종의 '공통감각'을 갖게 만든 혼종적 서사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42) 자제서 주로 鼓詞 演唱 滿漢兼 滿漢合璧 ㅢ 특수한 체제('만한겸' 자제서는 매 구절 중에 만주어와 한어를 섞어 쓰는 것. '만한합벽' 자제서는 매 구절을 각기 나누어 만주어와 한어를 대조해서 쓴 것) 후에 한어로 사작하고 연창하였다. 곡조는 東城韻 西城韻 ㅣ 있는데, 동성운은 충신효자의 일을 연창하는 데 쓰였고, 서성운은 애정이야기를 읊는데 쓰였다. 제재로 보면 자제서는 전인의 작품을 개편한 것이 많았다. 자제서의 작자는 대다수 성명과 생평을 고증할 수 없다.(백연, 같은 글, 156쪽)

43) 一粟 『紅樓夢書錄』 『 』『 』韓小窓 撰 『露漏緣 『會玉摔玉』『一入榮府』등을 비롯한 39종의 홍루몽 자제서가 수록되어 있다.

44) 백연, 앞의 글, 146쪽 참고.

www.kci.go.kr

6. 나오며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홍루몽의 등장과 전파, 작가에서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만주 문화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주문화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홍루몽이 전적으로 만주문화의 영향 속에서 탄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간의 한족중심적 시각의 홍루몽 연구를 교정하고 홍루몽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만주문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다.

홍루몽의 탄생은 滿漢 문화가 융합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 다원적 색채를 갖고 있는 청대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旗人文化 : 홍루몽이 탄생한 북경 지역에서 피어났고, 이곳은 가장 영향력 있는 만주문화가 지배한 곳이었다. 또한 조설근은 滿化 內務府 包衣世家 ㅣ서 태어났고, 曹家 : 조설근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만한 문화의 교융을 겪었던 가정이었다. 旗人 ㅣ 생활, 풍속, 관습, 예의, 사유방식, 심미관 등을 조설근은 자연스럽게 내면화했을 것이다.

본 고는 바로 만한문화 교융의 흔적을 보여주는 홍루몽을 다시 읽기 위한 시도이다. 홍루몽에 나오는 호칭이나 복식, 예법, 두발 형식, 제사 등 만주족의 관습에 대한 묘사가 상당부분 되는데, 이것은 조가가 한족이었지만, 이미 많은 부분 만주귀족의 관습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홍루몽은 북경어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남방의 吳 ㅣ역 언어와 북방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작자가 유년시절 남쪽 지역에서 생활한 후 북경으로 이주했으므로 남북의 언어 모두에 친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홍루몽은 지역적으로는 남과 북의 문화와 언어, 민족적으로는 만주족, 한족의 문화가 혼융되어 있는 혼종적 서사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參考文獻

조설근, 고악 지음, 최용철, 고민희 옮김,『홍루몽』, 나남, 2009.
이시바시 다카오 저, 홍성구 역,『大淸帝國』, 휴머니스트, 2009.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장징,『공자의 식탁』, 뿌리와 이파리, 2002.
徐正欽,「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만주학회, 만주연구 제3집, 2005.
이춘복,「청대 만주본위의 민족정책과 문화충돌」,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제 12집, 2012.
_____,「청대 전기 華夷觀과 청조의 滿漢 융합」,『다문화콘텐츠연구』, 14집, 2013.
노선아,「청대 홍루몽의 전파와 수용양상 연구」, 고려대 중문과 석사학위 논문, 2009.
曹雪芹 著,『紅樓夢』, 人民文學出版社,
周汝昌,『紅樓夢新證』, 人民文學出版社, 1976.
王志良 主編,『紅樓夢評論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白燕,「滿漢文化交融視野下的紅樓夢硏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李思蘊,「淸代滿漢文化交融背景下的旗人小說創作」, 暨南大學, 2008.
趙維平,「紅樓夢與旗人特權文化」, 明淸小說硏究, 2007年 第4期,

www.kci.go.kr

Abstract

A Research on the hybridity of *Hong Loumeng*
– A Reading on Hong Loumeng in terms of the intermixture of the culture of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Han race

Cho, Mi-won

For so many years most studies on *Hong Loumeng* was conducted in the view of Han culture. This paper introduces the view of man culture, puts this literary work in the macroscopic prospective of the cultural integration of Manch and Han and explores its trait on cultural background, author's state of mind, text connotation; on this basis, this paper will also review some biased ideas and defects caused by the single view of Han culture in the studies of *Hong Loumeng*, and tries to come up with more reasonable explanations. the paper adops the methods of combining historical materials with explication and carries on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from four dimensions, including cultural background, the author, the text, and the readers.

Key words : *Hong Loumeng*,Cao Xue Qin, Cao family, the culture of Manchuria, the culture of Han race, the intermixture of culture of Manchuria and Han race, hybridity, synesthesia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

www.kci.go.kr